

**전쟁하시는 그리스도와 전쟁하는 교회를
예표하는 다윗과 아비가일**

성경: 삼상 25:2-42, 앓 5:25-27, 6:10-13, 계 19:7-9, 11-21, 히 6:19, 10:19-20, 13:13

I. 사무엘기상 25장 1절 하반기부터 44절까지는 다윗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.

- A. 이 장에서 우리는 다윗을 진정시킨 일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본다 — 삼상 25:23-31.
- B.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자신을 만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함으로써, 또한 자신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 준 아비가일을 축복함으로써 아비가일의 호소에 반응하였다 — 삼상 25:32-35.
- C. 아비가일의 미모와 지혜는 다윗의 마음을 끌었고,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은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으며, 그녀는 전쟁 중에 다윗의 배필이 되었다 — 삼상 25:36-44.

II.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전쟁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— 삼상 25:28.

- A. 다윗은 부활 이전에 이 땅에서 고난당한 사람이신 주 예수님을 예표한다. 다윗이 고난을 겪은 것은 강탈하는 원수들을 정복하고,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터인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였다 — 시 69:1-9.
- B.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은 그가 블레셋 족속에게 거듭해서 승리를 거둔 것에서 볼 수 있다. 이처럼 그는 전사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— 삼하 5:17-25.
- C.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전쟁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에게 승리를 거두시는 전사이시기 때문에, 그분은 우리의 개가(凱歌),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— 출 17:8-16.
- D. 시편 110편 5절과 6절은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이신 것에 더하여 전사이심을 계시한다.
 - 1.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그분의 진노의 날에, 그분은 가장 위대한 승리자로서 모든 민족들을 이기시고, 왕들과 원수들의 머리를 쳐부수실 것이며, 그분을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 — 시 110:1-2, 5-6.
 - 2.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따르면, 그리스도는 돌아오실 때 싸우는 분이실 것이다.
 - a. 주님은 적그리스도와 여러 민족들의 군대들에 홀로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실 것이다.
 - b. 그리스도는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실 것이며, 신부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 대항하여 싸우실 것이다 — 계 19:7-9.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11(계속)

- E. 전사이신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시다 — 요 12:31, 엡 4:8, 히 2:14.
1. 이 땅에서의 사역 안에서,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마귀의 일들을 제거하셨다 — 마 4:1-11, 요일 3:8.
 2.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,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내셨고, 마귀를 멸망시키셨으며,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셨고, 죽음을 무효화하셨다 — 요 12:31, 마 27:51, 히 2:14, 골 2:15, 딤후 1:10.
 3.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께서 죽음에 대해 승리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 준다 — 딤후 2:8.
 4. 승천 안에서,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‘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’. 그리스도는 사탄의 강탈하는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며, 우리를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셨다 — 엡 2:6, 4:8.
 5.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싸우는 장군이자 전사로서 그분의 군대와 함께 오셔서,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휘하에 있는 왕들과 그들의 군대에 맞서 싸우실 것이다 — 계 19:11-21.

III. 아버가일은 고난 가운데서 전쟁하는 교회를 예표한다 — 삼상 25:2-42.

- A. 사무엘기상 25장 이후로 계속해서 아버가일은 언제나 전사인 다윗 곁에 있었고, 전쟁 중에 있는 그를 따랐다 — 삼상 25:40-42.
1. 아버가일이 다윗과 결혼한 것은 교회가 전쟁을 위해 군대로 징집된 것을 예표한다 — 엡 6:10-20.
 2. 아버가일은 전투하는 교회, 곧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는 교회를 예표한다 — 계 1:9, 11:15, 12:10.
- B. 아버가일의 예표는 우리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될 필요가 있음을 묘사해 준다 — 빌 3:10, 골 1:24, 계 1:9.
1.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두 범주가 있다. 한 범주는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고난이다.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다. 다른 한 범주는 교회를 산출하시고 건축하시기 위한 고난이다. 이것은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채울 필요가 있는 고난이다 — 골 1:24.
 2. 바울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청지기 직분이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— 골 1:25.
 - a.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면, 반드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— 계 1:9, 고후 1:3-6.

사무엘기상·하

메시지 11(계속)

- b. 교회 봉사나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청지기의 고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. 이것은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이행하는 데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— 고후 4:10-12, 요 12:24-26.
- C. 아비가일의 예표는 교회가 주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해 준다 — 엡 6:10-20.
 - 1. 그리스도의 배필이자 신부인 교회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계시되고, 이 배필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 전투원 곧 전사가 된다.
 - a.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성취될 것이다.
 - b. 이기는 이들의 총체는 신부 곧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며(계 19:7-9), 이 배필은 아 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다(11-21절).
 - 2.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, 하나님의 원수가 패배되어야 한다. 이것을 위해 교회는 반드시 전투원이 되어야 한다 — 엡 1:11, 3:9-11, 6:10-12.
 - 3. 영적 전쟁이 필요한 이유는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정면으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— 마 6:10, 7:21, 사 14:12-14.
 - a. 영적 전쟁의 근원은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에 있다.
 - b. 교회로서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— 계 12:11.
 - 4. 사탄은 자신과 자신의 왕국에 대항해 싸우는 단체적인 전투원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두려워한다 — 아 6:10, 엡 6:10-20.
 - 5. 그리스도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전쟁을 해 온 이들과 결혼하실 것이다 — 계 19:7-9, 11-16.
 - 6.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성하는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기 위해 그분의 모든 원수와 맞서 전투를 하며 그들을 패배시킨다 — 계 2:7, 11, 17, 26, 3:5, 12, 21, 11:15, 12:10.

IV. 아비가일의 예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믿는 이를 묘사해 준다 — 히 13:13.

- A.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두 방면, 곧 내적인 방면과 외적인 방면이 있다 — 히 6:19-20, 13:13.
 - 1. 내적인 방면은 솔람미로 예표되고, 외적인 방면은 아비가일로 예표된다 — 아 6:4, 10, 13, 히 13:13.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11(계속)

2. 한 면에서 우리는 휘장 안에 곧 지성소 안에 있으며,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성(城) 밖에 곧 진영 밖에 있다 — 히 6:19-20, 13:13.
 - a. 내적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, 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— 히 6:19, 13:13.
 - b. 우리가 비밀한 장소인 내실 곧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접촉할 때, 우리는 술람미에 비유될 수 있다 — 히 10:19-20, 아 1:4, 4:10, 6:13.
 - c.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생활에서 주님을 위해 증언하고 주님을 위해 일할 때, 우리는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방랑하던 아비가일에 비유될 수 있다 — 삼상 25:40-42.
- B. 매일 우리는 이 두 방면을 체험할 수 있다 — 히 6:19-20, 10:19-20, 13:13.
 1. 우리는 술람미로서 휘장 안에 있으면서 지성소 안에서 살며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며, 아비가일로서 진영 밖에 있으면서 세상 안에서 살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— 히 6:19-20, 13:13.
 2. 술람미와 솔로몬처럼 우리는 상아 궁전들 안에 머물면서 내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, 아비가일처럼 우리는 다윗을 따라 전쟁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외적으로 생활하고 일한다 — 시 45:8, 삼상 25:40-42.
 3.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고, 우리 밖에 계신 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— 계 1:17-18, 마 2:23.
 4. 내적으로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술람미의 누림을 가지며, 외적으로 우리는 아비가일의 공개된 생활을 갖는다.
- C.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가 휘장 안에서, 곧 교통이라는 내실 안에서 나올 때, 그는 십자가의 길을 취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 — 히 6:19, 10:19-20, 13:13.
 1. 오직 휘장 안에 들어간 이들만이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질 수 있다 — 히 6:19, 10:19-20, 13:13.
 2.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다 — 히 13:13.
 3.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으며, 지금은 그분의 아비가일인 우리를 인도하시어,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취하며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서 그분을 따르게 하신다 — 히 13:13.